의심을 갖지 말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지 우리들의 생활이 없이, 못났든 잘났든 우리들이 없이 부처님 법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우리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삼세를 초월함이 있고, 우주가 있고, 천차만별의 만물이 있고, 끝없이 흘러 도는 이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지고도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육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바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에 한 치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누적이 돼서, 집착에 누적되고 욕심에 누적이 되고, 바깥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끄달리거나 안에서 해 오던 습성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고, 한 다리로 절름발이로 걷게 되고, 애꾸눈이 되고 그러는 거죠, 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발 한 짝은 무의 세계에 두고 한 짝만 신고 나왔어요. 그 신발 한 짝을 내가 마저 신을 줄 알아야,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용무를 스스로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즉 평등공법을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뿌리와 싹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도 붙지 않는다 이랬죠. 종자를 심으면 뿌리로 화하고 뿌리로 화해서 싹을 형성시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그 싹은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싹과 뿌리가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나가 상봉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지금 그 싹은 뿌리에서만이 자기를 잘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의심을 갖지 말고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처럼 싹이 어딨는지 뿌리가 어딨는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머리가 깨이고, 물리를 알고, 또 과학이 어떤 건지 이론으로라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방에서도 보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뭣고?' 하고서 십 년을, 백 년을 있어 봐도 깨서 먹어 보지 못한다면 맛도 모르고, 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벌레 먹은 잎새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바로 마음 도리에서 스스로 약사가 돼 줍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도리를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줄을 쥐고, 즉 말하자면 내 주인공 그 뿌리를 쥐고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여보!" 하는 순간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듯이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게 될 때 바로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왜 못 믿고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사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이 있거나 그런다면 '바로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관세음이 된다 이 소립니다. 가정에서도 찰나찰나, 누가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얘, 아우야!" 하면 아우가 되고, "자네 있나?" 하면은 사위가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따지고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다웁고,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여섯 가지를 대신 못 해 줍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깨닫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똥 누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말입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줍디까? 그러니 이렇게 좋은 보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놓고 입력만 하세요. 정말이지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통신이 되면 대뇌에서 중뇌를 거쳐서, 찰나지만 말입니다,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이 안의 중생들이 다 작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들을 다 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어야 내가 안에서도 조복을 받았고, 바깥에서도 조복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하나의 보배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를 익혀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모든 거를 맡기면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돼서 그냥 바깥으로 끄달리고, "조그만 건 되는데 큰 거는 안 됩니다." 이럽니까. 큰 거나 조그만 거나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때에, 만약에 천 리를 간다 하더라도 요 문 바깥에 나가는 거리와 같습니다. 우주를 한 찰나에 한 바퀴 돌았다 하더라도 요 문 바깥이나 거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큰 거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깔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그냥 믿어 보셨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잘 배우고 학식과 지식이 많고 모두가 똑똑하셔서, 아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내가 이걸 그대로 믿어야 하나? 이거 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없으면서, 자기 몸뚱이의 한 개체에 생명들이 주둔해서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라고 내세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아는 게 많아서 말입니다. 진짜로 아는 게 많다고 말로는 안 그러죠. 그러나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르든지 알든지 무조건, 아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모르는 거는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끌고 다니는 거니까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잖아.' 하고 관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직결되는 통신입니다.

> 전체가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 솥의 죽밥이에요.
> 고가 딴 데서 와서 불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 그냥 나한테 주걱으로 쳐 넣으면 되는 거죠.
> 자꾸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물리가 터질 것입니다, 샘 솟듯.

환자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질문 저는 자원봉사로 간병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저희 불자들은 제불보살님의 가피력을 의지하여 쾌유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속 쾌차하기를 빌며 마음을 내기도 하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자기가 자기를 믿게끔만 해 준다면 이리로 동그라져도 주처가 거기 있고 저리로 동그라져도 주처가 거기 있기 때문에 도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다면 나는 항상 중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바깥으로 찾는다면 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허영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속에 종자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불성 종자가 없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靈)의 종자는 바로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장자라야 되겠죠.

얼른 쉽게 말해서, 나로부터 주처가 있고 나로부터 이 몸뚱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알게 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이름이 돼 버리고 자기 인식들이 그렇게 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레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이 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위축시켜서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라. 거지로만 살아라.' 이런 거나 뭐 다름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타인을 믿는다면 모두 마구니의 장난과 같으니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소리에 그만, 거기에서 딱 막혀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딱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각자'라고 그랬거든요. '각자 너를 믿지 않는다면, 타의에서 구한다면 그건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못났든 잘났든 너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거지 너를 빼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처의 자기 주인공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바깥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건 이 진리의 이름만을 찾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전에도 외국에 나가서 그랬죠. '불(佛)'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을 말한다. '교(敎)'는 일체 만물만생의 생활이다. 일체 만물만생이 생활을 해 나가는 거를 '교'라 그런다. 모든 생활에서 배우고 느끼고 지혜가 넓어지고 또 연구를 하고 창조가 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언어는 진리를 말하는 거지 어디 한 군데, 머리 깎은 사람이나 믿는 것으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 수녀들이 머리에 쓰고 하는 거나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마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천차만별로 그 수레바퀴에 끄달리고, 그냥 천차만별의 가닥가닥, 갈래갈래로 모습이 돼 있고 그러니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초는 가차 없이 잘라 버려라, 나오는 대로 잘라 버려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나오는 대로 깎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원효 대사가 설총이 쓰레질을 해 놓은 걸 보니 말갛게 쓸어 놨거든요. 쓸어서 무더기를 지워 놓았는데 가서 한 움큼 집어서 다시 뿌려 놨어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없어져도 없어져도…, 우리가 지금 저 아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발 떼어 놓고 들어오는 격이란 말입니다. 한 발 떼어 놓으면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없어지는데 한 발 떼어 놓는 게 없다면 그냥 다 무효죠. 그러니까 역시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고 떨어지면 또 쓸어야 하는 것이 이 진리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한테 이익하게 하려면 무조건 당신 마음에 주처가 있는 거니까 밖에서, 먼 데서 주님을 찾지 말라고 일러 주는 거죠. 당신을 벗어나서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 깊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또 불자들한테 이익 되고 공덕이 되게 하려면, 마음이 합쳐져야 공덕이니까 한마음으로 한 공덕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 마음들이 한데 합쳐져서 일을 해 주니까 공덕이죠. 그러나 한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면 공덕이 아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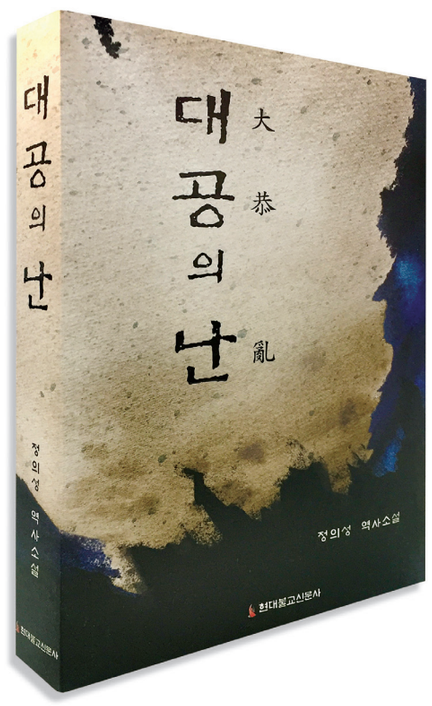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 아니게 돌아가야 한다. 전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마음이 50%가 있다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이 50%가 있다. 보이지 않는 몸이 50%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영체가 50%다.' 하는 것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사람이 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체가 또 반이 있죠. 밤낮이 이렇게 돌아가듯, 살고 죽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듯, 그러니까 불자에게는 당신 자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안에, 그 숱한 보살의 이름이 다 거기에 있다고, 당신네 아픈 걸로 비유한다면 그 약사보살은 바로 당신한테 있다고, 그 자부처의 마음에서 약사보살이 나온다고 그렇게 일러 주세요. 그렇게만 일러 주고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무진장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 02)732-1520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